

익산시 “농촌에 활력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 선정... 국비 49억원 확보 마을전자상거래 등 추진, 농민 삶의 질 · 소득향상 도모

익산시는 농민의 소득안정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분야별·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49억 원(총 사업비 70억 원)을 확보했으며 4년 동안 지역의 특색있는 유·무형의 어메니티 지원과 연계하여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행정지원 의존도를 낮추고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전자상거래 ▲농촌활력아카데미 운영 ▲시골여행활성화 등 분야별 세부사업을 수립했다.

우선 시장변화에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고령농·중소농·영세농민의 안정적 농업소득 창출(확보)을 위해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자원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15개 읍면별 마을 대표품목 발굴 ▲공동저장고·선

별기·포장시설 등을 갖춘 ‘유통거점 센터’ 구축, ▲고유 브랜드 개발 및 관리, ▲지역농산물 홍보를 위한 농산물·체험축제 발굴 등 ‘마을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에 대표 거점 지역 발굴을 위한 주민 사업설명회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공모 후 제안서 평가를 통해 거점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농촌관광 프로그램인 ‘시골여행 활성화’ 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지도사’ 과정을 시작으로 아카데미활성화,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사회적농업, 마을공동체, 창업아카데미 등 현장 맞춤형 과정별·단계별 교육을 운영하여 지역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특히 마을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촌활력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이며 분산·운영되고 있는 농업·농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on-stop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에 현장 맞춤형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

다. 농업소득 외 소득향상 방안으로 ▲기존 마을공동시설 보강·구축, ▲서비스 품질개선 매뉴얼 제작을 통한 인적·물적 자원 상향 평등화, ▲특색 있는 지역 어메니티와 연계한 여행상품 개발 및 시골여행거점 구축, ▲농촌관광 가이드라인 적용 등 ‘시골여행사업’ 등을 추진해 고령농·중소농 영세농민들의 삶의 질과 소득향상을 꾀할 방침이다.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전문화된 전략을 세우기 위해 행정과 민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액션그룹(지역활동그룹) 발굴을 위해 설명회 진행, 다양한 액션그룹과 인터뷰 등을 통해 신뢰성과 사업의 확장성을 높여가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농촌의 다양한 액션그룹들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활발한 교류를 위해 익산시 북부청사 3층 공간을 자원공유센터로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커뮤니티 공간 만들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농촌활력아카데미, ▲액션그룹커뮤니티공간, ▲인미디어방송교육실, ▲홍보관, ▲다목적 강당 등 농촌활력의 거점 공간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접근성이 취약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활하고 있는 익산 수어통역사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익산, 코로나19 정보 전달 ‘수어통역사’ 활약 눈길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접근성이 취약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활하고 있는 익산 수어통역사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익산시 수어통역센터는 21일 정보접근성이 취약해 위험에 쉽게 노출될 위험이 있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수어통역사 4명이 코로나19 브리핑 시 현장에서 정보 전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브리핑은 중요도만큼이나 난이도가 높은 통역 현장이다. 다른 브리핑과 달리 코로나19 브리핑은 급박하게 전개돼 사전 자료를 검토한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브리핑 발표와 취재진의

질의응답 시간까지 한 시간 가량 진행되는 긴 시간은 수어 통역사들에게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한다. 또한 이들의 복잡과 장산구에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오로지 수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표정과 손짓을 함께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좁은 브리핑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고충이 따른다.

이러한 수어통역사는 “청각장애인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이를 계기로 수어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어 많은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정보에 소외될 수 있는 청각 장애인들과 수어에 더욱 많은 관심과 배려가 당연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보건소, 오늘부터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군산시보건소는 2020년도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2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증상이 비슷한 코로나19와 동시 유행을 고려, 인플루엔자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단체생활을 하는 만4~18세 어린이 및 만 62~64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을 확대(올해는 무료접종 대상자도 4가 백신으로 접종가능)했다. 어린이 대상자 중 생애 첫 접종 대상자는 지난 8일부터, 과거 접종력 2회 이상인 1회 접종 어린이 대상자는 22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보건소 어린이 접종은 관리번호 발급대상자(주민등록번호 없는 내국인,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장기체류자)만 실시한다. 임신부도 22일부터 시작하며 주수 상관없이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임신진단서 등)를 제시하면 된다. 어린이 및 임신부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어르신 중 만75세 이상은 오는 10월 13일부터, 만70~74세는 오는 10월 20일부터, 만62~69세는 오는 10월 27일부터 접종 가능하다.

/군산=한경봉 기자

팔봉 공원묘지 전면 폐쇄

익산시가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 팔봉 공원묘지를 전면 폐쇄하기로 했다.

시는 21일 팔봉 공원묘지 전체 시설을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전면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추모객들을 위해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묘지 등 3개 시설은 보건복지부 온라인 성묘시스템 ‘해할’ 장사정보시스템(www.etzanal.go.kr)을 구축해 운영한다.

‘해할’ 장사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성묘 신청을 한 후 고인의 사진을 등록하고 차례상, 헌화, 추모의 글 작성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21일에서 25일까지 ‘해할’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접수하면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지역업체 우선 발주 강력추진

익산시가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예산 신속집행시 관내 지역업체 우선 발주를 강력추진해 지역경제 살리기

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21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정현을 시장은 “직원들이 주말 내내 비상근무를 하며 총력 대응해준 덕분에 이번 코로나19 확산의 고비는 넘겼지만, 강도 높은 방역 대책으로 지역 상권은 완전히 무너져 바닥을 치고 있다”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1조가 넘는 익산시 예산을 최대한 익산업체에 돌아가

도록 하는 것이 또 다른 형태의 재난 지원금이 될 것”이라며 “계약 추진시, 법에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관내 지역업체에 발주하도록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세워 시 전체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덧붙여 “다만, 특정업체 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도 함께 마련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현을 시장은 최근 역대 최대실적을 내고 있는 왕궁현업축사 매입을 협업의 모범사례로 꼽았다.

정 시장은 “5개 부서가 협업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일을 해냈다”며

“지난 몇 개월간 돼지 2만여두를 검축하는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이 사명감으로 자신의 힘을 다한 결과라 생각한다”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지난 10년간의 검축 실적인 5만두와 비교해봐도 5배 부

서 직원들이 얼마나 애썼는지 알 수 있다”며 “모든 복합민원에 대해서도 앞으로 협업의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정 시장은 “지역 내 집단감염 발생으로 우리 모두 치열한 한 주를 보냈다”며 주말 내내 비상근무로 방역에 헌신의 힘을 다해 준 직원들을 격려했다. 덧붙여 “추석까지는 한시도 경계를 늦추서는 안된다”며 시민들의 협조도 당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 더존디자인조명 착한가게 14호 현판 전달

평소 지역주민과 소외된 계층을 위한 나눔실천을 꾸준히 해오던 기업인이 착한가게로 등록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 임피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동기, 이희풍)는 최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기

후원을 약속한 (주)더존디자인조명에 착한가게 14호점 현판을 전달했다.

(주)더존디자인조명은 임피면 농공단지 내 입주한 건설한 업체로 실내조명, 가로등주, 신호등주 외 태양광과 경관조명기구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강미경 대표 “임피면 주민들에게 받은 관심과 사랑을 착한가게 후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지역의 어려운 분들과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동기 임피면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착한가게에 동참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 앞장서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